

# 11 preaching feature Nov

11월: "제목"

16 | 동성애에 대한 문화비평적 이해 - 김종걸

20 | 동성애, 새로운 문화로의 변신 - 이요나

24 | 제목 - 이경희

28 | 동성애에 대한 바람직한 기독교적 접근 - 안명준

32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접근 - 이요나

35 | 열린 복음 - 김종걸

38 | 제목 - 이경희

41 | 동성애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 안명준

### 요한복음 8장 36절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날 동성애는 사회 문제가 아닌 새로운 성문화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동성애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그만큼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 당시 소돔 성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거리낌이나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의 미색에 매료되어 노소 무른하고 물려들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앞선 광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머지않아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와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동성애의 근원을 살피고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인 인간의 이상을 정복한 사단이 인간의 육체를 자기의 것으로 장악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계승한 셈의 후손들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살아 있는 사람을 천사로 유추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어원을 따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은 히브리어로 '베네 하 엘로힘'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접근

이요나 갈보리채플 서울교회 담임목사

곳은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에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6장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또다른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 6:2)라고 기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과연 여인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들의 성적 능력을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기록 또한 없습니다.

### 육체와 타락한 천사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곧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유다서에 다시 언급됩니다.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란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이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히 1:14)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천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탐한 타락한 천사들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에서 다시 유추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벧전 3:18, 19)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옥'은 '타르타스(Tartarus)'로서 지옥 곧 '하데스(Hades)'보다 아래에 위치한 곳이며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벧후 2:4, 5)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히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가 말한 '어두운 구렁이'란 바로 옥(Tartarus)을 말한 것으로 유다서와 동일한 해석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개역한글판)고 기록된 유다서 7절의 말씀 가운데 '다른 색'이란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육체(Strange flesh)'로 번역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다른 색'이든 '다른 육체'든 유다서 저자의 의도는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육체(Strange flesh)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창세기 6장의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귀납됩니다. 유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유추하여 종말을 사는 우리의 경계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 누가 다른 의문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다가올 계시록의 시대에서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책임

성경은 동성애를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정죄는 동성애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모든 성적 무질서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합니다. 만약 오늘날 이러한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망은 모든 생물에 있어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바울은 이 허무함에 대해 언급하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롬 8:20)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란 생명의 존재 가치의 상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 수 있다면 죽음의 문제는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

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21) 기록하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자 앞에 무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선언하였습니다. 율법이 모든 죄를 사망으로 정죄한 것은 죄의 권능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 율법의 정죄가 죄인 된 나에게 도리어 은혜가 되었다 함과 같습니다(롬 7장 참조).

또한 사망이 죄의 결과라 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권세자 앞에서 죽음의 사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눅 12:4, 5)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미끼로 우리의 육체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자를 예비하셨으니 그가 곧 만인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도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산 자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로서 죄인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말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 2:3~5)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정죄를 받은 자로 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죄 가운데로 넘어질 것입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 동성애자의 성경적 책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opinion Interview Feature To Preacher Feature OT NT Power Theology Academy Preaching Interpretation Data News Books Lictionary Lesson Plan Ministry

## 테마 설교 1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 10)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롬 10:11) 하셨으므로,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맞이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는 영혼 회복의 위대한 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대답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고 기록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죄인 됨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동성에 탈출의 토대입니다. 아니 그는 이제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법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 육체와의 영적 전쟁

여기서 우리는 또다른 의문에 부딪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과연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 곧 ‘칭의의 판결’을 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얻은 성도로서,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동성애를 비롯한 다른 죄의 성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직 죄를 벗어 버리지 못한 육체의 습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일 뿐, 죄의 성질들은 아직도 우리의 몸속에 남아 있어 거듭난 우리를 공격하여 다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세상의 신들과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신의 단 한 순간의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에게 속한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송두

리째 넘겨 준 사단은,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연약한 육신을 유혹하여 다시 죄에 얽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령의 인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5a)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단맛에 길들여진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딜레마로 사도 바울 역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롬 7:23)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의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정신적 의지만으로 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오직 성경 말씀의 능력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롬 10:17)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겐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 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5~17)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그 어떤 철학도, 사상과 이념도, 사람이 가르치는 그 어떤 도덕과 윤리도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을 돕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P]

### 갈보리채플 서울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57-13 /

02) 798-5411 / <http://www.calvarychapel.co.kr>